

2024 글로벌 CEO 설문조사 리포트

KPMG 2024 CEO Outlook

October 2024

삼성KPMG 경제연구원

—
home.kpmg/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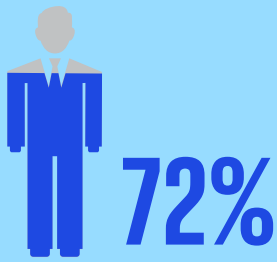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KPMG, 향후 3년간 기업 및 경제 성장에 대한 글로벌 경영진의 전망과 비즈니스 전략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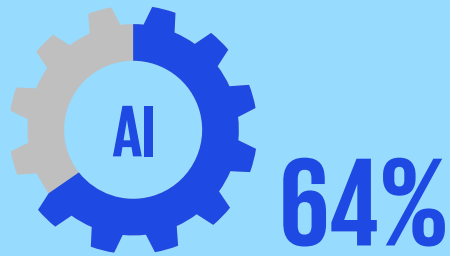
변동성의 시대, 민첩하고 유연한 시각과 함께 빠른 회복력 및 혁신 전략 필요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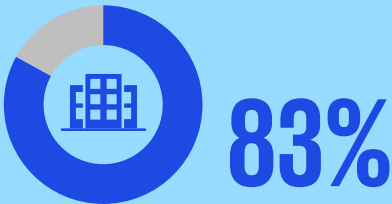
- 72%의 CEO가 향후 3년간 세계 경제 전망을 낙관
-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CEO는 공급망 불안이 자사 비즈니스 성장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

Technology and Generative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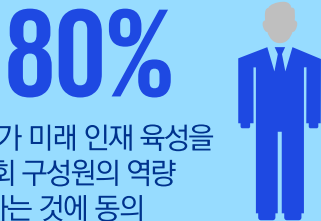


- 64%의 CEO는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AI(인공지능)에 투자할 의향
- CEO는 AI 기술을 비즈니스 영역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생성형 AI의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역량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인식

Tal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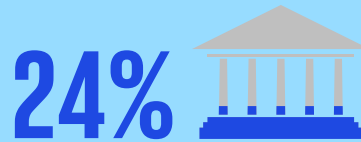


- CEO의 83%는 향후 3년 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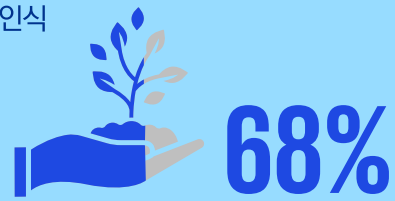


- 80%의 CEO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사회 구성원의 역량 개발에 투자하는 것에 동의

ESG



- 24%의 CEO는 ESG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쟁 기업에 우위를 내줄 수 있다고 인식



- CEO의 68%가 이사회가 반대하더라도 정치적 혹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응답



본 보고서는 “KPMG 2024 CEO Outlook”의 한글 요약본입니다.

Economic Outlook

급격한 환경 변화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 가중 ... CEO 72% 글로벌 경제 낙관적으로 전망

- 경영 환경의 복잡성과 변동성 증대에 따라, 세계 경제에 대한 CEO의 낙관적 전망은 2015년 93%에서 2024년 72%로 저하
- 최근 격동적 환경 변화를 넘어 기업이 장기 성장하기 위해서 리더들은 그 어느 때보다 탄력적이고 민첩하며 혁신적일 필요

글로벌 경제·경영 환경에 대한 글로벌 CEO의 진단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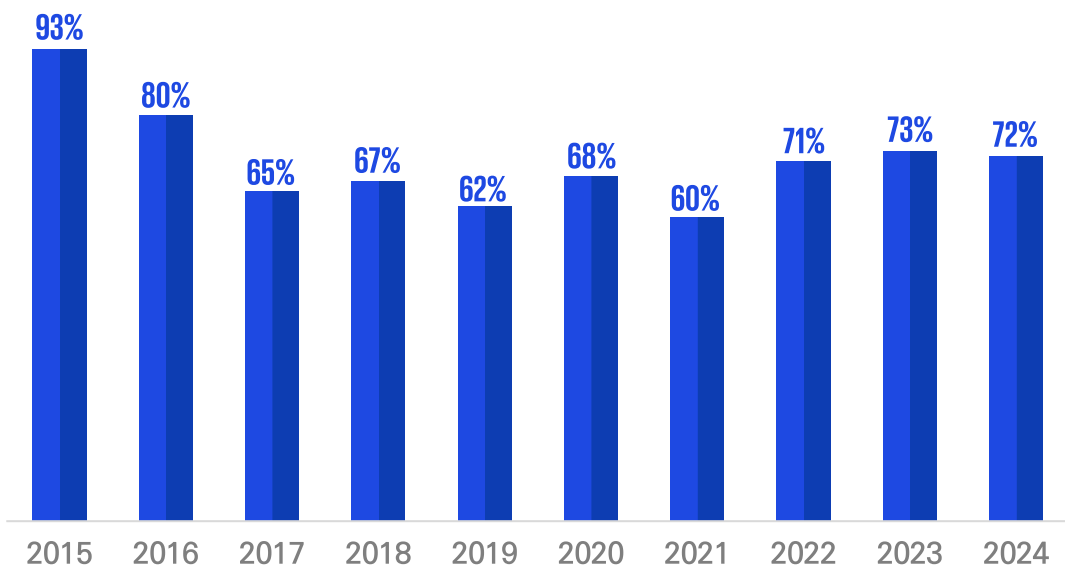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팬데믹, 인플레이션, AI 부상 등 복잡다기한 경영 환경의 변화와 높은 변동성 속에서도 글로벌 CEO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빠른 적응력을 바탕으로 기술과 인재에 투자하는 CEO는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Bill Thomas
Global Chairman and CEO
KPMG International

글로벌 CEO의 향후 3년간 세계 경제 낙관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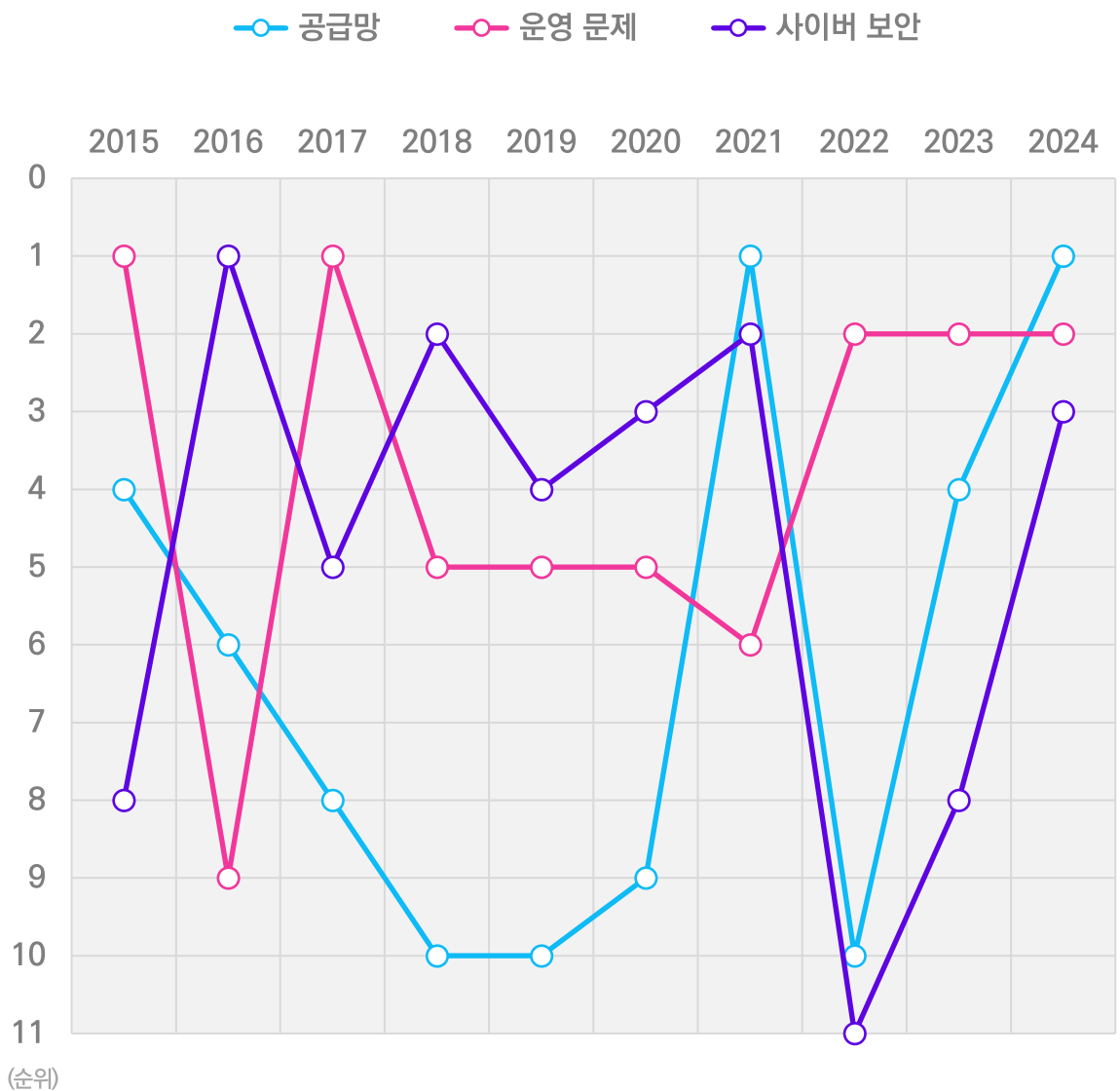
Source: KPMG International “KPMG 2024 CEO Outlook” (2024. 09)

Economic Outlook

글로벌 CEO, 장기적 성장에 압박 느끼는 가운데 공급망 관련 요소를 가장 크게 우려

- 향후 3년간 공급망 중단과 운영 문제가 비즈니스 성장에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비즈니스 전반의 디지털화 및 연결성 향상(18%), 생성형 AI 이해·구현(13%), ESG 이니셔티브 실행(13%) 등을 향후 3년 동안 최우선 운영 순위로 선택

기업의 지속 성장에 대한 주요 위협 요소 순위 변화



Source: KPMG International "KPMG 2024 CEO Outlook" (2024. 09) Note: 세로축은 순위(Ranking)

Technology and Generative AI

AI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 투자 지속 ... CEO 64% “AI 기술에 투자”

- 글로벌 CEO는 ‘기술의 혁신’이 지난 10년 동안 기존 질서를 뒤흔든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라고 응답
- 지난 아홉 차례의 KPMG CEO Outlook 설문조사 중 여섯 차례 조사에서 ‘혁신 기술’이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3대 위험 요소로 꾸준히 지목되어 옴
- 지난 10년 동안 AI 기술은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자율주행차량 등 분야에서 돌파구를 제시하며 점차 주목을 받음
- CEO 64%는 글로벌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AI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

글로벌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AI 기술 투자에 적극 나서는 CEO 다수 🔍

64%

글로벌 CEO 64%는 2024년 글로벌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AI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



David Rowlands

Global Head of AI
KPMG International

“전 세계 CEO가 AI 기술을 중시하고 기술 혁신에 적극 투자하는 모습은 고무적이지만, 보다 신중하게 준비된 기술 도입을 통해 윤리적이며 혁신적인 비즈니스 및 업무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AI 기술을 잘 도입하고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이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력 업스킬링 및 AI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AI 기술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섹터가 세계 경제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urce: KPMG International “KPMG 2024 CEO Outlook” (2024.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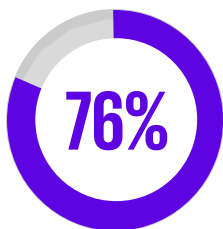
Technology and Generative AI

AI 보급 확대로 기업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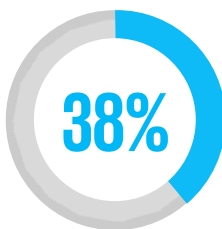
- 글로벌 CEO는 AI의 확대에 의한 기업 일자리 수요에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았으나, 조직 구성원이 가져야 할 필요 역량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응답
- AI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글로벌 CEO는 기업의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인력 업스킬링(Upskilling)과 조직적 혁신이 도모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글로벌 CEO는 AI 확대가 기업 일자리 감소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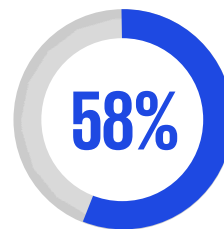
☑ AI에 대한 글로벌 CEO의 인식



AI의 확대에 의한 기업의 일자리 수요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



자사 임직원은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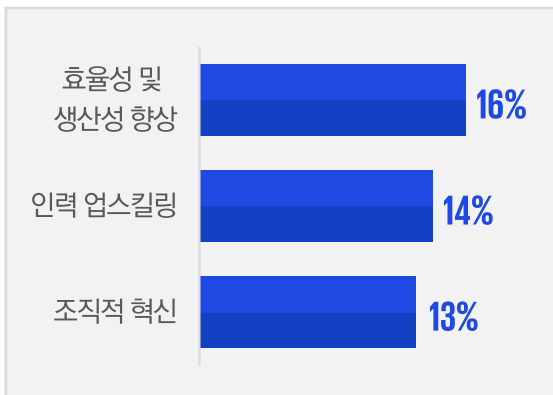


생성형 AI 등장으로 직원 채용 시 필요한 역량과 조건을 재고민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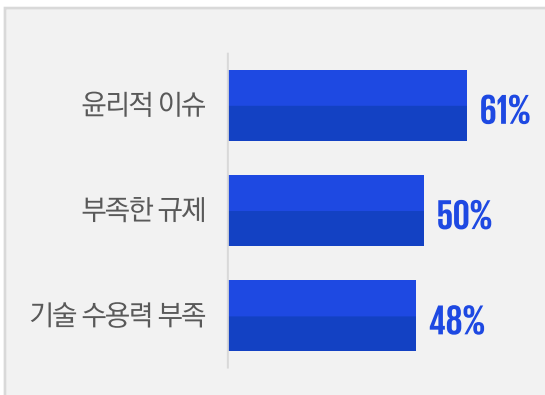
Source: KPMG International "KPMG 2024 CEO Outlook" (2024. 09)

글로벌 CEO는 AI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의 개선을 기대

☑ AI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AI 도입에 따른 우려요소



Source: KPMG International "KPMG 2024 CEO Outlook" (2024.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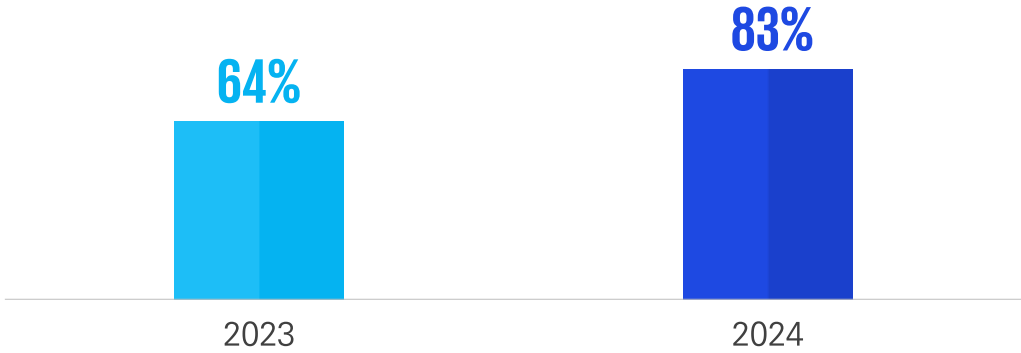


Tal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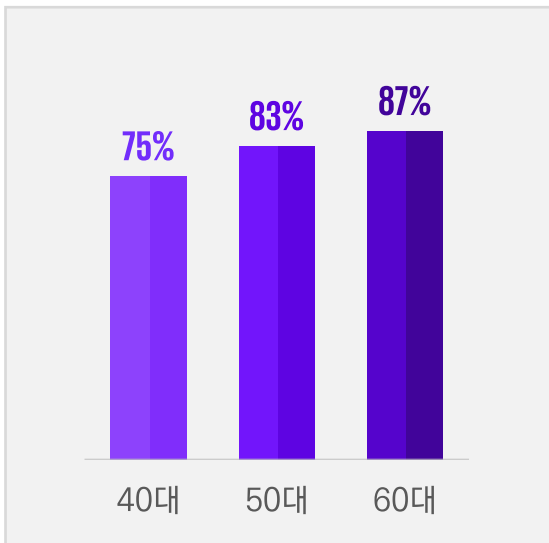
CEO 83% “완전한 사무실 복귀 기대”

- 2015년 이후 직원들이 점점 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보다 유연한 근무환경을 선호함에 따라 기업은 하이브리드 근무, 원격 근무 제도 등을 도입
- 한편 최근 CEO는 향후 3년간 직원들의 완전한 사무실 복귀를 기대. 특히 고령·남성 CEO를 중심으로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CEO 87%는 사무실로 복귀하는 직원에게 임금 인상, 승진 등의 보상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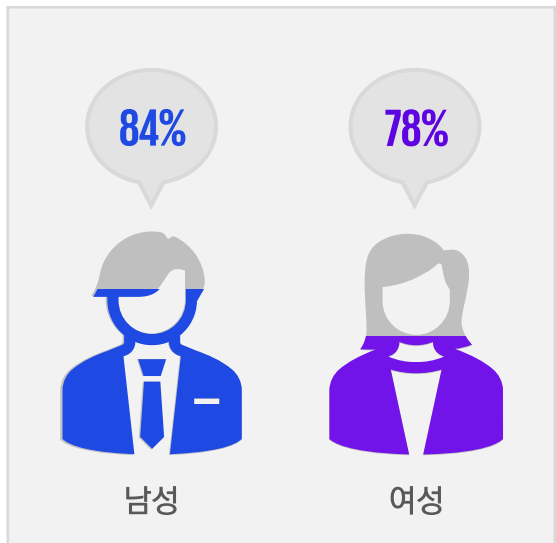
향후 3년간 직원들의 완전한 사무실 복귀를 기대하는 CEO 🔍



☑ CEO 연령에 따른 완전한 사무실 복귀 기대에 대한 응답 차이



☑ CEO 성별에 따른 완전한 사무실 복귀 기대에 대한 응답 차이



Source: KPMG International “KPMG 2024 CEO Outlook” (2024.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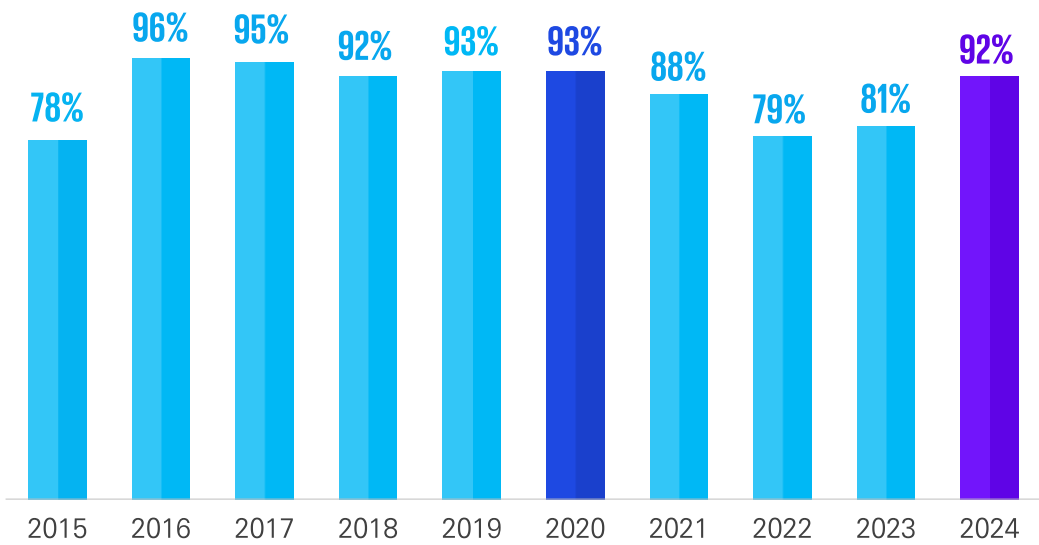


Talent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 CEO 92% “고용 확대 계획” … 2020년 이후 최대

- CEO 31%는 은퇴를 앞둔 직원들과 이들을 대체할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
- CEO 80%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의 기술 개발 및 평생학습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
-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CEO의 92%가 향후 3년간 직원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향후 3년간 직원 수 증가를 예상하는 CEO 🔍



“조직에 기대하는 바에 대해 CEO와 직원 간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며 직원 가치 제안(Employee-Value-Proposition)*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직의 우수한 리더로서 인재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 및 유연한 근무환경을 원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Nhlamu Dlomu
Global Head of People
KPMG International

Source: KPMG International “KPMG 2024 CEO Outlook” (2024. 09)

Note: 직원 가치 제안(Employee-Value-Proposition)이란 조직이 외부 인재를 확보하고 내부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차별화된 가치와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의미



ESG

경영진은 ESG 경영 전략 적극 실행 CEO 24% “기업 운영 리스크 … ESG 기대 미충족”

- CEO 24%가 기업 운영 관련 주요 리스크로 ‘ESG 기대 미충족’이라고 응답. 이는 ‘임기 중단 리스크’(21%), ‘인재 확보 어려움’(16%)보다 높은 수준으로 ESG 위상을 재확인
- 76%의 CEO는 ESG 측면에서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있어도 매각할 수 있다고 대답. 이는 CEO가 ESG 관련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의지가 높음을 반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ESG 위상 부각

2024년 CEO가 고민하는 회사 주요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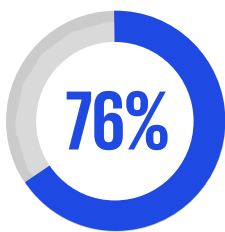


2015년 환경 관련 리스크는 기업 운영 리스크 중 가장 낮은 순위 ... 반면 2024년에는 ESG 관련 리스크에 대한 CEO의 고민이 깊어지며, 24%에 해당하는 CEO가 ESG 리스크를 주요 리스크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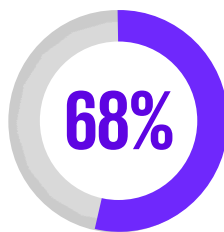
Source: KPMG International “KPMG 2024 CEO Outlook” (2024. 09)

글로벌 CEO는 ESG에 적극 대응 중

ESG 이슈별 대응에 대한 조사 결과



ESG 측면에서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수익성 있는 사업 부문이라도 매각할 의향이 있음



이사회가 반대하더라도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



John McCalla-Leacy
Head of Global ESG
KPMG International

“KPMG 2024 CEO Outlook은 ESG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기업이 진일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업에게 ESG는 있으면 좋은 ‘명예 훈장’ 정도로 여겨져 기업이 전략을 수립할 때 굳이 ESG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ESG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도해 나가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싶은 비즈니스 리더에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과제로 인식됩니다. 2024년 정치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많지만,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명확히 알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CEO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Source: KPMG International “KPMG 2024 CEO Outlook” (2024.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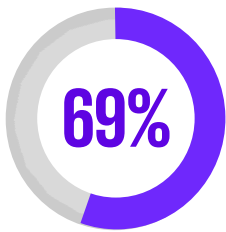


E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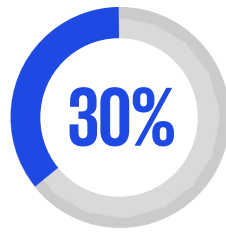
ESG 경영은 강화하고 있지만 ESG 이슈 관련 주주 감시에 대한 준비는 부족

- 기후 변화와 같은 이슈가 점차 정치화되면서 기업들의 ESG 달성 목표에 대한 압박과 기존에 설정된 ESG 목표를 재평가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CEO의 66%는 ESG 이슈 관련 주주의 감시 및 조사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응답

ESG에 대한 CEO의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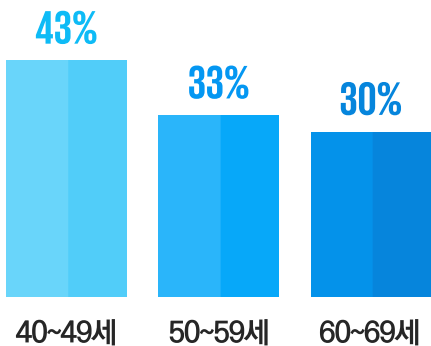
CEO의 69%는 변화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ESG 관련 용어를 조정



CEO의 30%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로 '탈탄소화에 따른 공급망의 복잡성 증가'라고 응답

ESG 관련 주주 감시에 대한 CEO의 준비도

CEO는 ESG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 및 조사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대별 응답)



- CEO의 66%는 ESG 이슈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 및 조사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대답
- 주주 감시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은 세대별 차이가 존재하는데, 젊은 리더(40~49세)는 50~59세, 60~69세 리더보다 ESG 관련 주주 감시 및 조사에 더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

Source: KPMG International "KPMG 2024 CEO Outlook" (2024. 09)

설문조사 방법론

KPMG, 전 세계 11개국·11개 핵심 산업
1,325명의 CEO 대상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개요 및 구성

- ☑ KPMG는 올해로 10년째 글로벌 CEO의 기업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과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설문조사 진행
- ☑ 올해 설문조사는 Economic Outlook, Technology·Generative AI, Talent, ESG의 네 가지 키워드가 주요 테마로 강조

설문조사 대상 및 기간

- ☑ 전 세계 11개 국가*, 11개 주요 산업**의 1,325명의 CEO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
 - **은행, 보험, 자산관리, 자동차, 에너지, 인프라, 테크놀로지, 통신, 소비자·유통, 생명과학, 제조업 등 11개 주요 산업
- ☑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액 보유 기업 CEO 대상
(응답한 CEO의 3분의 1은 연간 매출액 1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기업을 경영)
- ☑ 조사 기간 2024년 7월 25일 ~ 8월 29일



Source: KPMG International "KPMG 2024 CEO Outlook" (2024. 09)

Note: 반올림으로 조사 결과 합산 값은 1000이 아닐 수 있음



Industry Leader

금융산업
권영민 부대표
T 02-2112-0217
E ykwon@kr.kpmg.com

유통·소비재산업
신장훈 부대표
T 02-2112-0808
E jshin@kr.kpmg.com

전자·정보통신·반도체·엔터테인먼트산업
염승훈 부대표
T 02-2112-0533
E syeom@kr.kpmg.com

제조·공공·인프라산업
황재남 부대표
T 02-2112-7609
E jaenamhwang@kr.kpmg.com

제조·에너지산업
노상호 부대표
T 02-2112-7626
E sanghoroh@kr.kpmg.com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
E hyojungle@kr.kpmg.com

김규림 상무
E gyulimkim@kr.kpmg.com

박도휘 이사
E dohwipark@kr.kpmg.com

김나래 수석연구원
E nkim15@kr.kpmg.com

김수경 수석연구원
E sookyungkim@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